김다빈

1995.12.21 (만 27세)

T 010-4142-2397 A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16번길 60

M kdavin1221@gmail.com W https://davin-portfoilo.web.app/



교육

2022.11 - 2023.07

KH정보교육원

수료

Java기반 클라우드 융합 개발자과정

2016.03 - 2018.02 **신구대학교**

졸업

자원동물과 애완동물전공(3.9/4.5)

2011.03 - 2014.02

졸업

분당경영고등학교

시각디자인과

경력사항 총 3년 4개월

2018.12 - 2020.07 (1년 8개월)

(주)닷즈커뮤니케이션

재무회계팀 사원

- 근태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 및 총무 보조

2013.11 - 2015.05 (1년 8개월)

삼영전자공업(주) 인사팀 사원

- 근태관리, 4대보험, 유니폼관리, 연말정산

[지원동기 및 기술 습득경험]

학원에서 7개월간 풀스택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화면을 풍부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프런트엔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프런트엔드로서의 역할을 더많이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만든 페이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화면이 움직이는 것에 성취감과 재미를 느꼈습니다. 수료 후 프런트엔드 개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React의 컴포넌트 기반 개발, Redux를 통한 상태관리를 공부하였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하였는데, 단순히 강의의 코드만을 따라 치지 않고 추가적인 기능을 만들어 스스로 코드를 짜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장 프로젝트라면 메모 주제에 따라 메모지의 색상이 달라지는 기능, 쇼핑몰 프로젝트라면 장바구니 옵션 다양화, 카테고리 정렬 등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을 기능을 추가하여 강의 내용을 복습하며 저의 코드에 적용해 보는 등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협업 경험]

학원에서 두 번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획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기획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두 명이 간단히 만들어 보려고 기획을 탄탄하게 하지 않고 몇 개의 기능만을 구상한 후 바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다섯명으로 늘어나며 프로젝트 규모도 커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역할 분담, 코드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안 풀리는 점은 서로 도와가며 협력한 결과 프로젝트는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으나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전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 노션을 활용하여 처음부터 최대한 자세히 기획하였습니다. 스케줄링,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와이어 프레임, 변수명 명명 규칙 등 가능한 최대한 자세히 기획하며 참고 자료 또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의 규모가 이전 프로젝트에 비해 3배가량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문제였던 역할 분담, 코드 관리, 통일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중 담당이었던 메인페이지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자 추가한 이벤트 페이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른 팀원들과는 관련이 없는 기능이라 생각하여 혼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설계하고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여 페이지 개발이 완료된 후 다시 처음부터 기능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소한 기능일지라도 팀원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고 의논해 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성격의 장점과 단점]

모든 조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 뿐만 아니라 리더와 함께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팔로워십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선 정직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함은 어떤 조직에서든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저는 한 번의 거짓말 이라도 언젠가 드러남은 물론이고, 후에 커다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않고 정직함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평소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에 조급함이나 불안함을 느끼곤 하는데, 이를 고치기 위해 현재에 집중하며 무엇이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